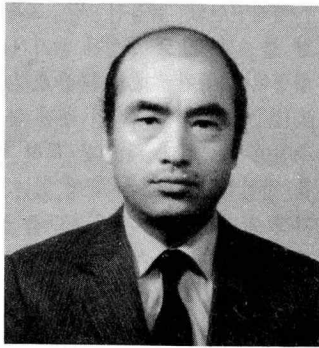


정보통신산업 수요창출 기반다져

吳 泰 鏞 한국데이터통신 기획본부장



필자

- ▲서울대 상대 졸업
- ▲금성사 기획심사부장
- ▲한국데이터통신 기획본부장(현)

1. 머리말

'86년 5월 공포된 “電算網 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은 87년 1월부터 시행 발효됨으로써 국내 情報通信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였다.

이 법률은 國家基幹電算網의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산망 발전을 위한 기구 설립을 규정하여 '87년 4월 전산망 사업의 발전 및 보급 확장을 위한 조사,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할 情報通信振興協會가 발족되었고, 87년 1월 전산망의 표준화와, 타당성 검토 및 감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電算院이 출범하였다.

또한 '87년 5월에는 특정통신회선 이용제도의 일부 개방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특정통신회선의 共同使用範圍가 확대되어, 정보교환 행위를 일부 허용하였으며, 외국과의 합작법인에게도 情報通信 役務提供 승인 기준이 일부 완화 조치 되는 등으로 그룹사 계열회사 상호 간의 전산망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국내 情報通信의 새로운 展開

가) 기업간 전산망 사업의 확산

'87년 5월 정부의 특정통신회선 이용제도 일부 개방 조치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VAN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여러 그룹들이 관련 회사 설립이나 기존 조직 개편 등을 통해 VAN 사업 기반 구축을 서두르게 되었다. '87년 10월말 현재 VAN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정보통신역 무승인을 얻었거나 신청중인 업체는 삼성데이터시스템(SDS), 에스티 엠(STM), 대한항공, 두산산업, 현대전자, 효성히다찌데이터시스템 등이며, 이밖에도 쌍용컴퓨터, 대우통신, 동양시스템산업, 일진, 삼성반도체통신등이 사업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1차적으로 그룹 계열회사 간의 시스템 統合 및 정보교환 행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VAN 사업의 영역이 개방되는 대로 기업간 전산망 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데이터통신이 지난 9월 개통한 관광예약시스템은 제주 지역의 숙박업계와 전국의 여행사를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기업간 전산망이다.

이는 서로 이해 관계가 있는 이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국내 流通業界 및 제조·서비스 업계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한국데이터통신과 합작으로 한국여행정보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행사에서 항공 예약을 가능하게 하는 항공예약시스템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데이터통신과 한국정보통신(주)가 각기 업무 영역을 조정하여, 신용카드의 信用照會를 간편하게 해주는 신용카드조회 시스템을 본격추진, 상용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철강, 자동차 업계 등에서 대형 제조회사들과 공동의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기업간 전산망의 구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년부터는 기업간 전산망의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 활발한 情報通信 서비스 開發·拓算

한편 '87년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내에서 개발 또는 도입되어 정보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이기도 했다. 지난 4월 한국데이터통신이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한글전자사서함은, PC 등으로 작성된 문서나 메시지를 전자사서함 컴퓨터에 즉시 보관하고, 상대방이 편리한 시간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에 의한 최첨단의 컴퓨터통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본·지시간 업무 연락, 출판사 등의 원고 송고 등으로 다양한 이용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처럼 펜팔, 동우인들의 서클 활동 수단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생활정보서비스 이용의 양적, 질적 확산과 함께, 企業財務情報, 工業標準情報, 物價·積산정보, 証券情報 등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일반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은행 서비스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곧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C의 낮은 보급율,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점, 정보 미공개 원칙 고집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情報提供者(Information Provider)의 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어, 본격적인 국내 정보은행 서비스의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國家基幹電算網 사업 박차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및 공안망 등 5개망으로 구성된 국가기간전산망은 '87년 1월 시행령이 발효된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法律”에 의해 실질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내년까지 1차로 7개 사업을 전산화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행정전산망 사업은 올해 가장 활발한 개발 추진 활동을 보인 전산망 사업이었다.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로 미국 톨러트사의 Eternity 기종이 선정되었고, 사회적 여건상 가장 시급을 요했던 노동부 고용관리 업무의 취업알선 서비스는 지난 5월 전산화가 완료되어 개통식을 가졌고, 전국 단위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연결하여 줌으로써 지역별 人力需給 不均衡 해소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 올림픽 綜合情報網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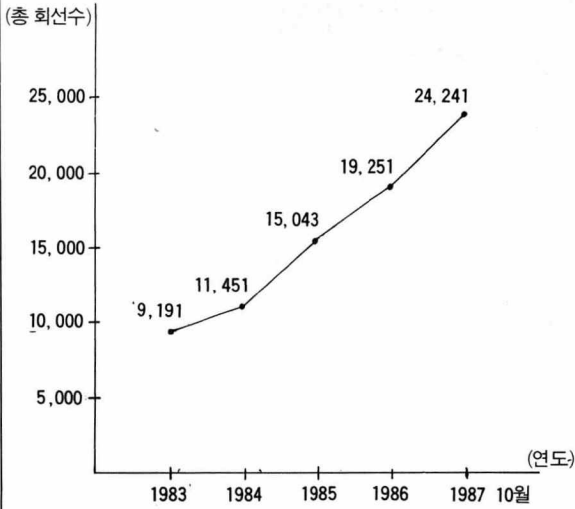
한국데이터통신은 지난 '86년 아시안게임에 INS(Integrated Network Service)라는 올림픽 종합정보망을 선보여 세계 각지의 외신기자들로부터 격찬을 받으며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바탕위에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사용될 종합정보망의 마무리 개발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 각지로부터 온 선수단과 기자단에게 競技進行 및 取材, 報道에 필요한 전자우편 및 경기 정보검색 기능을 제공하게 될 새로운 종합정보망(WINS)은 전세계 공중정보통신망 뿐만 아니라 텔렉스, 무선호출시스템(Paging) 과도 연결을 가능케 하는 최첨단의 정보 통신망이다.

이미 TELECOM'87 등 외국 전기통신 전시회에 선보여 호평을 받은 이 서비스는, 특히 전자우편 부분에 CC-ITT X.400시리즈에 의한 MHS(Message Handling System)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88년 하반기에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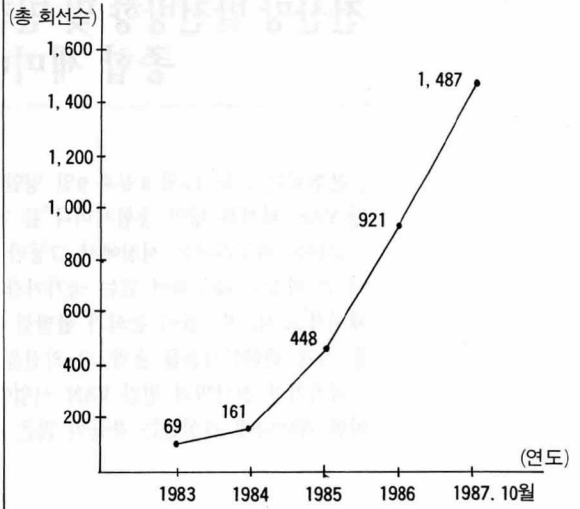
마) 情報通信 需要의 安定的 成長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착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수요를 보여주는 대표적

〈그림 1〉 특정통신회선 연도별 총 회선수



〈그림 2〉 DNS 가입자수 연도별 추이



인 지표는 특정통신회선과 DNS(DACOM-NET Service)의 가입 현황이다. 특정통신회선은 전송량이 많은 대형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용이 대부분으로 주로 금융기관,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년 10월 현재 총회선수가 24,241 회선으로 전년대비 2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 정보은행, 해외 전자사서함, 한글전자사서함 및 본지사간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DNS의 경우 10월말 현재 1,487개 가입자로 6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87년말 1,580개가 입자, 증가율 71.0% 예상).

한편 10월말 현재 Dialcom, NOTICE 등 해외전자사서함의 이용자수는 184개 기관(전년대비 증가율 3.3%), DIALOG 등 해외정보은행은 351개 기관(증가율 41.0%), 한글전자사서함이 94개 가입자, 생활정보서비스가 217개 가입자, AP-REUTER 등 금융정보전송서비스가 91개 기관 등의 현황을 보이고 있다. DNS의 가입자 분포는 일반기업체 943개(63.4%), 공공기관 145개(9.8%), 금융기관 49개(3.3%), 기타 350개(23.5%)로 DNS의 활용이 비지니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맺는말

이와 같이 '87년 정보통신 산업 분야는 기업간 전산망의 본격구축을 위한 기반 확산 작업이 진행되었고, 정보

사회의 바탕이 될 신종 뉴미디어들이 개발, 확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요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올림픽종합정보망 등 국가적 프로젝트에 의해 정보통신산업 육성및 수요 창출이 유도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글 코드 및 통신 프로토콜의 標準化, 저가의 端末機 대량 보급, 통신회선의 질적 향상,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등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DACOM-NET 등의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풍부히 하여 정보통신 유통량을 극대화하고, 단기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정보통신량의 극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실현을 기본 전략으로 해야할 것이다.

'87정보통신의 해'를 결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은 정보통신에 관한 홍보활동이다. 이미 뉴미디어 국제 세미나, 地域情報化에 관한 지방 순회 세미나 등의 관련 세미나와, 각종 전시관설립, 논문 현상공모 등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정보통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새로운 수요 창출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 활동이 국내 정보사회 조기정착과 정보통신 수요창출의 필연적 과제로서 인식되어, 더욱 그 양과 질을 향상시키면서 지속성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